自然保護運動과 敎育의 意義

洪 淳 佑
(서울大學校 敎授·醫博)

序

1978년 10월 5일 自然保護憲章의 宣布와 함께 自然保護啓蒙이 汎國民運動으로 전개되기 시작한지도 어언간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간 우리는 이 運動을 통하여 全國土의 美化와 함께 쾌적한 生活環境을 만들기 위해 서로가 협조하여 왔으며, 그 成果도 또한 큰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自然保護憲章의 精神을 되새겨 볼 때 人口의 계속적인 증가 및 産業의 發展과 더불어 自然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과도한 人間의 욕구와 本然의 自然環境에 대한 人間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저지른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自然環境은 병들고 毁損되어 가고만 있다. 이러한 自然環境을 구제하기 위하여는 첫째단계로 祖上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을 가꾸고 淨化함으로써 自然의 調和를 지속시키도록 힘써야 하며, 둘째단계로는 비록 비좁으나마 잘 지켜져 온 自然環境을 保存함으로써 大自然의 均衡을 유지시키도록 하며 세째 단계로는 일상 생활의 기반이 되는 自然資源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이를 우리의 後孫에게 물려주어야 할 일들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自然保護運動은 일부 人口가 過密集된 大都市나 工業團地 등에서는 특히 環境汚染의 問題와 결부되어서 한편으로는 都市, 農村 할 것 없이 쾌적한 生活環境의 조성과 함께 自然을 淨化한다는 측면에서 保存을 위한 汎國民運動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제 제1단계는 그간 시간이 흐르면서 官民의 상당한 관심으로 國民運動으로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제2, 제3단계의 目標達成을 위해서 새로운 각도에서의 지혜로운 努力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一大 轉換期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大自然의 均衡, 곧 生態系의 均衡을 유지시키면서 이를 管理한다는 더욱 專門的이고도 自然保存의 本質的인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努力이 어떤 方向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

Ⅰ. 自然保護와 開發의 調和

어떤 歷史家는 '文明人은 地球의 表面을 옮겨가면서 발전을 가져왔으나 그 발자취로는 荒廢만을 남겼다'라고 人間에 의한 自然破壞를 신랄하게 비평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大都市는 어울리지 않는 콘크리트文化가 自然과의 調和를 깨뜨렸고, 大規模 工業團地의 주변도 唯一한 賦存資源인 공기와 물, 흙을 점차 汚染시키기에 이르러 生活環境에까지 위협을 주게 되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時點에서 다시 한번 自然保存의 根源的 槪念을 파악해 보건대, 지금까지의 제1단계 運動이 國土淨化 즉, 쓰레기 줍기와 같은 皮相的

인 運動에서 進一步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自然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維持·管理하느냐가 問題라 할 것이다. 人口의 증가와 産業의 발전이 수반되는 오늘날의 社會與件에서 開發과 自然保存이 調和를 이루어야 함은 重要한 점이다. 人間이 주로 農業이나 手工業에만 의존하여 生活할 수 있다면 人間과 自然의 共存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와 같은 무계획한 開發 및 環境汚染이 계속된다면 이로 인한 環境變化는 마침내 自然의 均衡破壞를 초래할 것이며, 人間에게 직접 간접으로 反作用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다가오는 2000年代에도 살기 좋은 이 自然環境을 維持·管理하기 위한 努力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積極性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좋을 것이다.

自然保存의 實踐에 있어 分野別로 모두 강조점이 다르기는 하겠으나 生態系의 構造와 機能을 유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生態系의 機能을 存續시키기 위해서는 人間의 文明生活을 위한 活動의 결과가 生態系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를 미리 認知하는 지혜를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Ⅱ. 自然保護敎育의 本質과 그 再評價

敎育이란 그 本質的인 使命이 정확한 지식의 올바른 전달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바른 實踐生活을 몸에 익히도록 啓導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自然保護敎育도 自然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能動的이고도 積極的인 保護活動을 生活化하도록 하는 일이 그 目標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自然破壞는 自然保護에 대한 基本槪念이 定立되기 전에 先行된 開發로 인한 것이며, 이는 곧 自然保護敎育이 올바로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現時點에서 敎育의 使命은 파괴된 自然을 復元, 이를 合理的으로 保全·管理하여 그 이상 毁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自然保護敎育은 環境敎育과 脈絡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自然保護敎育은 한 마디로 올바른 自然觀을 갖도록 敎育하는 일이므로 이러한 理想的인 敎育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敎育理念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敎育理念의 定立은 첫째, 地球는 단 하나밖에 없고 有限하여 人類에게 唯一한 生活의 터전이 되므로 이것을 荒廢하게 하는 文明의 暴力 행사나 이런 文明을 이룩하게 한 自然觀에 대하여 새로운 檢討를 하여 自然은 누구든지 먼저 征服하는 者가 主人이 된다는 종래의 생각을 바로잡아 自然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아무도 함부로 할 권리가 없다는 투철한 共有財産意識이 確立되도록 새로운 自然觀을 定立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自然保護敎育은 人間과 自然의 相互關係를 倫理的으로 다루어져야 할 敎育 분야와 自然에 관한 科學的인 知識을 敎育해야 할 분야의 두 가지 側面에서 照明되어야 할 것이다. 自然에 대한 인식에서 형성된 科學的인 知識을 바탕으로 하여 自然保護의 當爲性을 설명하는 것은 倫理·道德的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하며, 그 배경은 自然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새로운 價値觀에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敎育理念이 定立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째로는, 自然保護敎育의 기본 이념에는 自然性의 回復이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自然保護의 필요성은 사실상 都市文明의 소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都市의 사람들은 풍요한 自然에의 原體驗 즉, 自然과의 交際가 불가능해져서 자신도 그 일부가 되는 自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自然保護의 源泉的인 의식조차 극히 희박해진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自然毁損의 중대한 책임은 그 많은 부분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自然敎育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초기의 自然敎育은 博物學에서 다루어졌고, 그 주된 임무가 채집과 標本製作 및 이들을 同定하고 命名하는 일이었다. 학술 연구를 위한 채집은 절대로 필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채집이 자칫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道德的 倫理感을 상실케 하여 자연을 스스럼없이 毁損시켜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발전시켜 生態系로서 調

和를 이루는 自然의 本質을 파악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있다.

博物學에서 탈피한 現代生物學도 물리학, 화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生命現象을 微視的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만을 극대화시켜 생명 현상을 자연 속에서 인식하기보다는 실험실에서 物質分析을 통하여 이해하려는 입장에 서고 말았다.

한편 敎育環境에서 자연을 말살시킨 産業社會의 발달은 현대 교육을 교실 속으로 몰아넣고 말아서 진정한 의미의 自然敎育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만 실정이다. 더우기 自然保護敎育의 다른 한 요소인 自然資源論에 관해서도 현행 교육 체제로는 理論의 綜合化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資源의 有·無限性 혹은 再生可能性의 문제나 資源과 人口問題의 연관성 따위를 綜合하여 評價할 수 있는 敎育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Ⅲ. 自然保護敎育의 方法

이상의 自然保護의 敎育理念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敎育의 基本前提가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우선 自然保護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엇보다도 인간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敎育風土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自然의 일부가 되는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며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자연을 保全·管理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하다. 둘째로는, 자연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生態系는 生物들과 非生物的인 環境要因으로 구성된 정교한 체계이고, 人間은 이러한 生態系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비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는, 自然이 우리 모두의 共有財産임을 인식하고, 이는 우리의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資源이므로 이를 남용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황폐가 초래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敎育의 基本前提를 받아들여 먼저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올바른 自然觀을 확립하고, 또한 자연과 가까워져 잃어버린 인간 본연의 自然性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自然保護敎育은 自然에 대한 價値觀을 바로 세우고, 이를 生活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行動敎育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자세에서 自然保護活動에 참여할 수 있도록 啓導하고 교육 활동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敎育의 內容에 있어서는 첫째로 자연과 가까와지도록 유도하는 교육 활동, 둘째로는 自然을 알게하는 교육 활동, 세째로는 自然을 소중히 지켜 保護하는 實踐的인 교육 활동의 3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敎育活動이 理想的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위한 적당한 장소, 교재, 지도자 및 지도 기술 등의 충분한 배후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들 각각의 교육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바람직한 敎育效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自然保護敎育은 日常生活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할 全人敎育이므로 교육의 기회나 장소로 이를 구분할 때 家庭敎育, 學校敎育 및 社會敎育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학교 교육이 자연을 이해하는 知識敎育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家庭敎育과 社會敎育은 實踐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道德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은 주로 아동이나 학생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社會敎育은 成人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敎育이 모두 상호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지향하는 目標도 동일한 것이어서 어느 하나도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은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또한 장기적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國民意識을 啓導할 수 있고 바람직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Ⅳ. 自然保護敎育의 方向

敎育의 참다운 效果는 理論과 實際가 이상적으로 부합될 때 비로소 만족할 만한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관찰하고 保護해야 할 자연이 없는 都市의 한가운데서 진정한

〈19p에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중요하고 훌륭한 일을 하려거든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행동은 조심스럽게,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면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상과 같은 생각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단순한 내용에 지나지 않지만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제 설득력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여덟째, 각종 시험에 있어 꼭 일등을 하여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무엇이든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을 믿고 있다면,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보다 못한 사람들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人間關係는 서로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 또 서로의 결함을 용납할 수 있는 때에만 평등한 관계, 협력하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십만명이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으로 겨루는 시험에서 자기의 분수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슬기를 체득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학교의 졸업에 앞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각자가 서로 다른 면에서 우수성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이웃을 통하여 채울 수 있을 때에만 人間生活은 다양해질 수 있으며, 풍성하고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며 그 목표를 향하여 접근하여 가는 것이 우리 人生의 命題라면 행복한 인생관, 평등한 인간 관계, 민주주의의 기초가 중·고교 시절에 다듬어지도록 힘써야 하겠다. ☒

〈24p에서 계속〉

自然保護의 의미는 實感될 수 없으며, 개발과 파괴가 성행하고 있는 곳에서 生態系의 本質을 알려주는 敎育的인 效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保護敎育이 成功的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들이 우선 解決되어야 할 것이다.

① 自然保護를 위한 汎國民的인 意識改造作業이 先行될 것.
② 自然保護敎育을 위한 專門家의 양성을 시급히 할 것.
③ 學術活動의 진작을 위한 國家的인 배려가 있을 것.
④ 自然保護敎育의 실습장을 확보할 것.

結 言

진정한 自然保護는 人間이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 自然을 再編成하지 않고 自然의 基本原理에 스스로 순응하며 自然에 調和를 이루어 나가도록 人間을 敎育하는 일이다. 또한 人間만이 아닌 다른 모든 生物들도 이 地球를 함께 나누어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지구상에서 인간이 자기 중심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啓導하며, 나아가 自然은 우리 후손들의 것이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빌려서 쓰고 있다는 정신적 자세가 마련될 때 가장 바람직한 敎育成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제 2 단계, 제 3 단계 운동을 꽃피우게 될 주춧돌이 됨을 믿어마지 않는 바이다. ☒